

社說

차이나캠퍼스

대진대학교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차이나캠퍼스'를 이용해 중국 현지에서 한 학기동안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무서운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국가로 일본과 더불어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신입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글로벌 경제체제를 이해함으로써 대학졸업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진대학교의 획기적인 교육정책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특히 신입생들은 등록금 하한 학비나 체제비에 대한 부담없이 한 학기동안 중국 현지 대학에서 중국어는 물론 영어 등 국제어와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게 된다.

차이나 캠퍼스는 잡간의 연수나 학생교류, 학술교류로는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대진대가 시작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중 양교가 갖고 있는 교육자원과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학생과 대진대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학위도 공동체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중국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여름이나 겨울 보충학기 수업을 차이나캠퍼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국학생과 대진대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두 학교에서 두 개의 학위를 받는 '투 플러스 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국이나 한국 어디서든 취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대학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대학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총장 두명이 한쪽을 방문한 바 있고 대학유치를 위해 중국 고위층이 직접 대진대를 찾아온 정도로 적극적이다.

대진대는 그동안 차이나캠퍼스 설립을 위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하얼빈 등 4개 권역, 9개 대학을 방문해 사전조율을 하고 있다.

이들 권역에는 수도사범대학, 난카이대학, 푸단대학, 소주대학, 저장대학, 칭다오대학, 중국해양대학, 하얼빈사범대학, 하얼빈공업대학 등 중국내 명문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중 하얼빈사범대학과 소주대학이 우선협상대학으로 정해졌으며 두 개 학교중 1개교를 선택해 차이나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다.

차이나캠퍼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한·중 대학발전을 위한 포괄협력 협정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협정서(안에 따르면 포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한·중 합작 캠퍼스 건설, 학술·교육 교류사업(교수·학생 교환 및 공동학위, 각종 연수프로그램 등), 기타 양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사업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대진대학이 이처럼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통해 인재양성의 큰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대진대 열명 중 네명이 장학금을 받는다. 이는 국내 대학 중 최고의 장학금 수혜율이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차이나 캠퍼스를 통해 인재양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포천시 선단동에 63만평 대지에 자리잡은 대진대는 열린 교육을 내세우며 차이나캠퍼스와 테크노파크,우수신입생 해외체결등을 통해 대학발전 가능성 제고는 물론 포천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네트워크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게 될 대진대학교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축하를 더욱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

이철우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 답례로 밝혀



포천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철우 포천·연천지역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열린우리당)를 초청한 가운데 상견례와 주요시정 및 현안사항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과 흥성훈 시의회 의장 및 각 위원장, 최원일

답례인사에 나선 이 당선자는 “오늘의 축하를 더욱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포천시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사항으로 ▶포천시 아트밸리 조성사업▶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대진테크노파크 조성▶영북지방산업단지 조성▶포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과 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수도권 전철유지▶민자주진 고속도로 건설▶국도 43호선 대체도로 개설▶포천 국제입양인 센터 건립▶기업 지방이전 대상으로 포천시가 선정된 데 따른 대처방안 등을 이 당선자에게 설명했다.

간담회 후 참석자들은 본관 앞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함차게 외치며 기념촬영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ntel.net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 사임



고 총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힘을 합쳐야” 강조 고건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임식 후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직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청사를 떠났다. 이임사에서 고건 총리는 “그동안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공정한 총선관리라는 저의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마음깊이 감사한다”며 “이제 여와 야, 노와 사, 온 국민과 참여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ntel.net

경기도 신설 가시화 된다

경기도분도추진창립대회 6월4일 양주시청서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 갑)의 2006년 경기도도지사 선출 발전에 이어 경기도분도추진위원회 창립대회가 오는 6월4일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후4시에 개최된다. 양주시의회 김완수 의장을 범경기도분도추진창립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겸 경기도분도추진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고, 경기도분도추진위원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 경기도분도추진위원회 창립대회는 창립의원 경기도분도실현을 위해 경기도분도추진창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60만 경기도 주민의 경기도분도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회로 추진하며 범경기도분도추진위원회 창립대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모아 경기도 신설에 대한 시민의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ntel.net

총선출마자 딸, 아버지 낙선비관 투신 자살

지난 29일 오후 1시30분경 포천시 소흘읍 소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17대 총선 모 정당 후보였던 김모(61)씨의 딸(25)이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총선과정에서 대가성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포천선관위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지난 25일 딸과 함께 선관위를 찾아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조사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했다”며 “당시 실랑이가 벌어져 선관위 직원이 캠프더로 촬영했고 이후 딸이 불면증을 겪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의 딸은 약 1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들어 상태가 호전됐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지난 29일 오후 2시 30분경 포천경찰서를 방문하고 엄연한 야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본부 직원들을 격려하며, 반드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수 기자 les562@hanmail.net

와보뉴스

포천시 농업인자녀 학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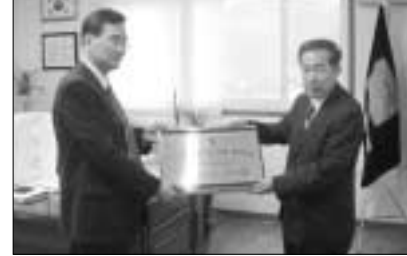


포천시는 27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2004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전달식을 갖고 모두 66명에게 학자금 지급증서를 수여했다.

포천시는 특히 올해부터 관내 농가의 학자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경기면적

1.0ha미만에서 1.5ha미만으로 확대해, 지원대상을 늘렸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배결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농업인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04년도 모범납세 직장선정 현판식



포천시는 지난 28일 이윤성 자치행정국장장과 윤석희 세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모범납세 직장”으로 선정된 원조이동컴비(주) 등 관내 3개 업체에 대해 모범납세 현판을 전달했다.

선정된 업체는 원조이동컴비주식회사(대표 이영구)를 비롯해 주식회사 오델(대표 김연태)과 삼신기업주식회사(대표 오화남) 등 세 곳으로, 이 업체들은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 2003년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점을 인정받아 모범 직장으로 선정됐다.

포천반월아트홀 직원친절교육 실시



포천반월아트홀은 지난 28일 직원친절교육을 통해 공연장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과 고객응대 및 안내기법, 전화예절 등의 내용으로 4시간동안 진행됐다.

아트홀 관계자는 금년 11월중에도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최고의 친절 서비스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칼럼

강택선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 이래 30년간의 공백기간을 거쳐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을 시발로 하여,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선으로 의회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치 실현으로 인한 변화 내지 영향을 살펴보면 다소 고압적이고 경직된 분위기가던 관료행태와 행정 관행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주민과 행정기관간 벽장이 존재하던 거리감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지방정치 활성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치적 욕구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갈등이 많은 요즘, 관과 민 사이, 혹은 주민과 주민 사이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터에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회원으로써 지방화시대의 자치능력 배양과 지역개발, 주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내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넓게 포천시 전체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원들이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수준 높은 정책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와 견제가 있으면 이러한 전문성에 윤리성만 가미되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에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풀뿌리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여론을 제대로 수렴,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쌓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주민들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가를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먼 미래를 향한 시정 전략을 강구해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신명이다. 그러나 이 신명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 같아, 주민들이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보다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네 탓이오’ 보다는 ‘내 탓이오’가 먼저야 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원대한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힘을 합쳐야 하겠다.

중앙부처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분권화가 이행되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위상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지방의회는 분권을 이끄는 중심에 있어 지방의회 스스로 시대적 소임과 역할을 찾아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극복하고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다.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자기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다. 뛰어난 사람에게서 장점을 배우고 잘못된 사람에게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자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믿는다.

Publica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including subscription rates, contact details, and a list of staff members.

정치활동 동향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개최된 제6회 포천시 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에 참석, 국회의원 입기가 시작되는 첫 날에 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지난 28일 포천고등학교 제5회 왕방축전 기념식에 참석, 청소년들의 축전을 통해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소신과 비전을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29일 포천시 의회 6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시 제1차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21일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북부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우의를 다졌다.

최대중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30일 화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화현초등학교 개교 70주년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오병익 경기도의원은 지난 18일~21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서 200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결산에 관해 의결했고,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했으며, 철저한 보완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만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북부 자치단체 도시,군 의원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지난22일 이동초등학교에서 어머니회가 주최한 바자회에 참석하여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오 포천시의회원은 지난 21일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경기북부 의원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30일 가산초등학교, 경복중학교에서 개최된 직장인 체육대회에 참석, 대회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천목 포천시의회원은 지난 29일 10시 포천시의회 사무실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돼 전직공무원 김의환, 박영근, 변진수, 최창근씨와 함께 6월2일부터 21일까지 2003년도 결산감사를 실시한다.